

학내기관 탐방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 인터뷰 /김태완 교수(조선해양공학과)

학습상담실을 찾아오는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진로와 관계된 고민을 하는 경우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되는데 좀 더 정확히 경력개발센터 프로그램을 알고 권유하고자 소장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력개발센터는 크게 진로상담부, 취업지원부, 글로벌 취업지원부, 진로정보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진로상담부는 주로 1, 2학년 학생들의 진로설계 과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취업지원부는 인턴십 및 취업을 목표로 하는 3, 4학년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취업지원부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정보부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및 SNS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신 업데이트된 채용공지를 올려 학생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본교 졸업생들의 취업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률과 관계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이 경력개발센터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학부 졸업생, 대학원 졸업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및 국세 DB와 연계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취업을 했는지의 여부를 알게 됩니다. 그밖에 유학을 가거나 입대한 졸업자 정보까지 파악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소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력개발센터 사업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력개발센터 소장이 된 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2010년 9월에 처음 경력개발센터에 왔을 때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취업률을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서울대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전체 학생의 60%정도이고, 30% 정도는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2년 더 소장 직을 맡게 되면서 올해 부터는 취업의 질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학생들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내실을 키우고자 합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알리기 위해 어떠한 홍보방법들을 활용해오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력개발센터는 원래 학부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데 제가 처음에 소장자로 왔을 때 학부생들 중에서 경력개발센터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첫째로 홈페이지를 관리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경우 평일 날 학생들이 평균 1800회 이상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자 많이 노력했기 때문인데 3,4학년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서울대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는 다른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경력개발센터에서도 저희 경력개발센터를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과 소통하는 첫 번째가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할 때 홍보를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포스터를 모든 학과에 부착하게 한 후 스마트폰으로 찍은 인증 사진을 전송하게도 했습니다. 또한 포스터 홍보 외에도 대량의 이메일을 보내고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서비스도 이용해

서 학생들이 경력개발센터에 와보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경력개발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진로와 취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수첩도 제작해 작년부터 신입생 모두에게 편지와 함께 학생의 집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한 이유는 홍보차원에서입니다. 서울대에 가장 관심이 많은 나이인 1학년 학생들과 그 부모님에게 경력개발센터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게 되면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그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에게는 학생들을 서울대에 보낸 보람을 느끼게도 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한명도 빠짐없이 수첩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편배송료가 조금 들더라도 이러한 홍보방법을 통해 학생들은 학년이 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경력개발센터의 존재를 알고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도 프로그램 홍보와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이 노력하고 계신 여러 가지 홍보방법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반응이 10%정도, 그것도 3,4학년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센터를 학생들이 모른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력개발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과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경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추천해주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경력개발센터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학생들이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리는 기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교내 16개 단과대학별로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경력개발센터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진로상담부나 취업지원부는 일대일 상담을 주로 하는데 학생들이 점

점 증가하고 있고, 소규모로 진행하는 집단 프로그램과 대규모 특강도 참여율이 높습니다. 특히 글로벌 리더특강, 동문 선배와 함께하는 워크숍 및 특강 그리고 해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글로벌취업지원부에서 하는 Global Talent Program도 학생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장애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직접 만나보면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내에 있는 장애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 막연하게 어떤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 경력개발센터에서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선배와 연계시켜 줄 수 있는지, 프로그램화 된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전체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대1 멘토링을 하는 건 어렵지만, 저희 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은 선배에게 듣는 직장이야기, 프로젝트 멘토링 등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업종이나 직무를 정해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멘토 선배와 5명 안팎의 멘티 학생들을 연계해주고 한 학기 동안 활동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탐색과정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외에 소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다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경력개발센터 소장 외에 또 다른 보직으로 관악사 사감직을 작년 8월부터 맡게 되면서 아크로폴리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구상해왔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대 학생

들이 이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토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글쓰기도 중요하지만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자신이 말을 하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 같은 경우를 보면 클린턴, 오바마의 경우 토론의 질이나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시스템의 잘못으로 토론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말을 잘 하면서도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든가 하는 소통의 방법을 배우는 것은 올림픽 선수가 끊임없는 연습을 하여 메달리스트가 되듯이 노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관악사 기숙사에는 5000여명의 학생이 있는데 매년 1%인 50명 정도를 뛰어난 역량 가진 학생으로 사회에 나가 소통의 핵심인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관악사에서 담당하지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경력개발센터 실무자들과 함께 준비해나갈 예정입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세 가지 캠프에 대해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Career Frontier Program은 리플렛을 보시면 보다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크게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tep 1,2,3로 구성되어 있는데 Step 1의 진로비전캠프 같은 경우는 진로상담부에서 운영하는데 주로 저학년들이 진로비전을 설정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집중형 프로그램이고, Step 2의 SNU人 취업캠프는 취업지원부에서 운영하는데 2013년 올해 상하반기에 취업이나 인턴십을 계획 중인 고학년 학생들에게 취업이나 인턴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집중형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Step 3의 글로벌역량강화캠프는 글로벌취업지원부에서 운영할 예정인데 학년 구분 없이 해외로 취업하거나 해외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국제경쟁력 강화 측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개발센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소장님이 말씀해주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